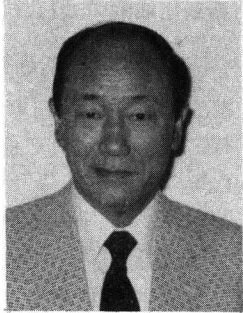


弘報理事所管業務

새로운 病院像의 確立



弘報理事 韓斗鎭

서울韓國病院長

國民醫療의 最一線에서 不撤晝夜 애쓰고 있는 우리 病院이 社會와 나아가 國民과 呼吸을 같이 함이 當然할진데 어찌하여 大衆에게서 疏外되고 있는 것인가!

福祉社會의 具現이 國家의 至上命題이고 보면 그의 重要한 一翼을 担当하는 病院의 醫療가 國民全體의 信賴를 받고 依持되고 感謝를 받는 기구가 되어야 함은 必然的이다.

醫療保險이 定着化되어가고 全國民에게 擴大되는 過程에서 醫療需要가 증가함에 따라 病院에게 負荷되는 負擔은 物心兩面으로 至大하다 할 것이다. 社會의 要求가 病院經營의 出血을 強要하였고 各級病院이 各己 最善을 다투어 醫療施惠를 베풀기에 努力하여 왔다. 問題는 우리 會員病院이 不撤晝夜 우리 社會에 對한 貢獻이 國民 여러분에 認定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반드시 그러하지 않는 것이 現實情이다.

우리 모든 會員病院은 모두가 舍心하여 弘報 및 涉外活動의 強化를 통하여 「國民으로부터 信賴받는 病院像을 定立」하여야 하겠다. 이러한 課題는 쉽게 보이지만 本協會의 一個 弘報理事의 努力만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協會는 全力을 傾注하고 會員病院 모두가 一致 團結하여 나가야 만이 어려운 醫療情勢속에서 有終의 美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多樣한 技術人力의 集合體인 病院들

이 各己 特殊한 條件 밑에서 福祉社會 具現이라는 至上課題를 놓고 施行에 따르는 矛盾을 克服함에 있어서 制度的인 錯誤와 함께 이에 順應하려는 데에 여러 問題가 惹起되었고 當局이나 國民大衆의 理解 不足에서 오는 여러 가지 物議의 對象이 되었고 때로는 우리 病院의 醫療施惠가 白眼視되고 仁術을 저버렸다고 叫彈을 받은 處地에까지 이르렀다고도 할 수 있다.

其間의 事情은 어찌되었든 不問에 부치더라도 現今의 이러한 霧困氣를 갖게 하고, 社會의 輿論이 우리 病院들의 誠心誠意한 努力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仁術을 저버리고 不當利益만을 追求한다는等 전혀 同情을 얻지 못하는 趨勢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制度上의 矛盾을 타하기 보담은 우리 自身 即 病院協會를 비롯한 會員病院 全員에 이 責任은 있는 것이다.

國民保健의 最終醫療를 担当하고 人生의 갈림길을 決定하는 機構의 集合體인 우리 病院은 우리 社會와 또 우리 國民과 呼吸을 같이 함이 當然한데 어찌하여 大衆에게서 疎外되고 있는가!

病院이라는 性格이 内向性이고 各自 맡고 있는 使命만을 完遂하면 된다는 單純한 思考 아래의 病院運營도 問題가 되었을 것이다.

사회에 대한 使命을 充實하게 이행하기 爲하여 努力함에 協會는 協會 나름대로 病院 發展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診療의 質保障을 위해서 Q.A(適正 診療保障)의 심사를 강화하고 基準을 確立하여 國民에 期待를 저버리지 않았고, 淨化委員會의 부단한 活動으로 物議의 根本을 발본하여 밝은 病院象 定立을 追求해왔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러나 이러한 内實을 期하는 우리의 努力을 國民 大衆이나 当局에 適切히 反映되었는가는 別個의 問題이다. 더우기 問題되는 것은 醫療原價에도 未達하는 現行 酬價로 奉仕하는 各級 病院이 어떻게 適切한 醫療水準을 維持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러한 基本的인 問題에 輿論은 全혀 同情的인 것이 현실이다 하겠다.

醫療費는 어떠한 形態이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逆境을 打開하는 데에는 于先 國民의 輿論으로 하여금 우리 病院의 努力을 理解할 수 있도록 呼訴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絶對的인 前提로 当局의 同情的인고 積極的인 뒷받침이 있어야 함은 勿論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各級 病院 全体에서부터 受

診하는 患者를 対象으로 啓蒙함이 가장 손쉽게 施行될 수 있는 方法의 하나이기도하다.

恒常 醫療倫理를 遵守하고, 患者에게 對話의 広場을 마련함도 좋을 것이며 앙케트로 輿論函을 利用하는 것을 獎勵하는등, 可能的 方法도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現行制度上的 矛盾이나 지나친 規制에 對한 妥結은 亦是 政府나 國會 그리고 言論機關에 對한 不斷하고 積極的인 弘報와 涉外活動에 依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現行 酬價의 非合理性, 諸般 稅制上的 改善 그리고 病院經營의 特殊性을 勘案한 여러가지 支援方法이 呼訴力 있는 方案이라 할 것이며, 이에 關聯되는 모든 機構가 理解 하고 同調하게 하는데에는 前述한 바와 같이 全 會員病院의 아낌없는 協助와 贊助가 必要한 것이며, 一個人의 誠意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이렇게 病院界가 團合하여 山積한 醫療問題를 해결하고 有終의 美를 거둘 때 이는 곧 우리 會員病院의 「이미지」를 向上시키고 合理的인 病院運營에 貢獻한 것이고 나아가서는 沈滯된 우리 醫療分野의 發展을 期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제 새해기년도를 맞아 本協會의 執行陣의 一員으로 責任感을 느끼며 誠心誠意껏 最善의 努力을 傾注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우리 會員病院의 總和로써 積極的인 支援과 指導鞭撻이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